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6월호



두 채무자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1절을 부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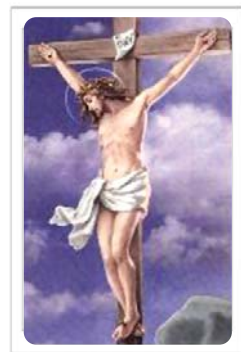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7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나는 주님께 많은 은총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 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음은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 이란다.”

우리의 삶에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공기의 존재처럼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매순간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니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1, 2절을 부릅니다.

궁금
했어요성시간의 의미와 자세를
알고 싶어요.

성시간(聖時間)이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시간’이며 ‘기도로 봉헌된 시간’인데요. 계세 마니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거둬 하느님께 봉헌하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립니다. 성시간의 핵심은 예수성심께 공경을 드리고 보속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특히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죄의 보속을 청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중재기도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의 마음을 풀어 드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자비를 간구하며 상처받은 예수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릴 것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성심을 묵상하며 감사를 올리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성심의 아픈 고백을 듣는 은총도 청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회개의 응답을 원하시는 그분께 형식적인 기도와 태도를 벗고 진솔한 믿음으로 응답해 드리세요. 이 신심 행위의 축복은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의 수난을 기워 갚으려는 각오를 갖게 하여 주님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분처럼 희생,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통상, 매월 첫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에 성체 현시와 함께 거행되지만, 언제 어느 시간을 구별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향한 의탁의 참 기쁨을 맛보기 바랍니다.



소공동체 단결력의 힘

- 하대동본당 6구역 7반 -

- 김삼순(하대동 본당 구역분과장, 미카엘라)

저희 하대동 본당 소공동체는 여덟 개의 구역과 5~7세대로 구성된 5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반이 적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 본당처럼 소공동체 모임에 많은 숫자의 반원들이 참석할 수는 없지만 각 반원 가정의 밥숟가락 개수도 알 수 있을 만큼 친밀하고 끈끈한 결속력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점은 부활 달걀 콘테스트나 성탄 축제 장기자랑 프로그램 행사 때에 각 반원들의 기막힌 아이디어와 뽀뽀 뭉친 막강한 에너지로 발산되기도 합니다. 작년 성탄 때에 우리 6구역 반원들이 늦은 밤까지 고생하며 열심히 연습하여 <올빼미님은 우리 구세주>라는 코믹하고 메시지가 담긴 연극으로 큰 호응과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활 달걀 콘테스트에서도 각 반원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예술적 감각으로 태어난 부활 달걀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공동체 안에서 스며 나오는 위대한 단결력의 힘이 아닐는지요. 특히 이번 지면을 통해 6구역 7반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이색적인 7반은 5가구로 13명의 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원들이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소공동체 모임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반입니다. 밤 8시에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해서 9시에 마치고 나면 언제나 웃음으로 가득한 즐겁고 재미있는 우정의 시간인 소박한 술자리가 이

어집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매번 빠지지 않고 신자인 아내를 따라 참석하시는 비신자 남편 한 분도 계십니다.

현재 반원들은 그분을 선교대상자로 목표를 정하고 많은 기도와 희생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번과 똑같은 경우로 아내인 자매님을 따라 소공동체 모임 뒤에 마련된 친교시간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자연스럽게 반원들과 친분을 나누며 지내다 7반 반원들에게 포섭(?)되어 영세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매번 술안주를 신경 써야 하는 작은 희생이 뒤따르지만 그 수고를 마다 않고 주님의 복음사업인 선교와 친교를 위하여 언제나 기쁘게 술안주를 준비하는 7반 반원들에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지난 번 소공동체 모임을 마치고 일어서면서 7반 선교대상자인 그 형제님의 말씀이 귀에 맴돕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